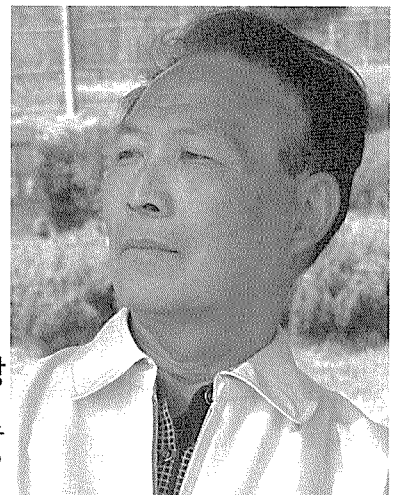


“50번째 지회로 새완주지회가 나옵니다.”



이용관 지회장
“녹용의 브랜드!
투명한 지회를 이룩하겠다”



이영수 사무장
“은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새완주지회 영역 넓히겠다.”

완주지회가 '새완주지회'로 새롭게 창립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완주지회는 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 지회의 성격보다는 분열된 조직과도 같았습니다. 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었고, 지회의 모임도 활성화 되고 있었죠. 그러나 리더십이 회비에 대한 잘못된 집행은 전 지회 회원을 실망시켰고, 그로 인해 완주지회는 그 목적과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새완주지회'는 지난 4월 3일 새완주지회로 지회명을 한 것은 이 때문입

니다. 회원간의 불신과 분열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회원과 임원은 어떻게 위축이 되었는지요.

“친목 모임의 형태로 맥을 유지해 오던 완주지회는 지난 3월 협회의 지시에 따라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주에 속한 사슴인들 중 자원하는 사람과 추천을 받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해 주신 회원 분들도 계십니다. 임원은 추천을 받아 위축하고, 회원은 자원해 주신 분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지난 4월 3일 본회는 50번째 지회로 기존 완주지회를 새롭게 단장하고 '새완주지회'를 창립했다. 이날 지회장으로는 이용관(화산사슴목장) 사장이, 사무장에는 구 완주지회의 총무였던 이영수(임마누엘사슴목장) 사장, 재무에는 최형기(성도사슴목장)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에 한국양육에서는 새완주지회 이용관 지회장과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완주지회의 비전과 그의 복안을 들어 본다.

현 총 11명 중 지회장을 포함 3명의 임원, 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새완주지회가 감당하는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회는 협회로 협회는 지회로 상호 교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회가 있어야 협회가 존재하듯이, 지회 또한 협회의 의견과 지시에 따라 잘 협조하고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사업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새완주지회는 회원증원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현 완주지역 사슴 농장은 총 100여 호가 됩니다. 이중 60%라도 회원으로 해 지회가 활성화 되고 영향력 있는 지회가 되고자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 새완주지회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복안이라면 복안이고, 바람이라면 바람인 게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농공 단지가 있습니다.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축산단지도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축

산의 활성화는 물론, 축산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양육의 브랜드화입니다. 현 양육 산업은 침체국면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회의 회원이 증원되고 힘이 모아진다면 꼭 이 녹용과 사슴육에 대한 브랜드를 꼭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완주지회 현황

지회장 : 이 용 관 (화산사슴목장)
011-797-6429

총 무 : 이 영 수 (임마누엘사슴목장)

재 무 : 최 형 기 (성도사슴목장)

회 원 : 국 길 수 (죽절사슴목장)

윤 진 호 (벨엘사슴목장)

정 영 천 (연석산사슴농원)

신 동 철 (철륜사슴목장)

주 종 연 (송암사슴목장)

고 정 석 (사봉사슴목장)

박 대 영 (대영사슴목장)

김 복 숙 (금상사슴목장)